

GRACE 선교소식

2025년 10월 GMI-GKC 선교사 현황: 59개국 304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약 두 시간 떨어진 수양관에서 콜롬비아 목회자 사랑의 불꽃 5기를 인도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연속된 부흥회와 사역으로 육신은 다소 피곤하지만,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시력도 많이 회복되어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의 불꽃 5기에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등록 인원은 84명이었고, 실제 참석자는 69명이었습니다. 팀 멤버는 미국에서 렉터 장준영 장로님과 31명, 베네수엘라에서 김도현 선교사님 내외와 14명, 콜롬비아에서 32명, 쿠바에서는 구스타보-엔젤라 선교사님 가족이 함께하여 총 81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꽃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눈물로 감격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새삼 느끼며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목회자들 중에는 세워질 신학교에 입학할 원하거나,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많다는 점이 큰 열매입니다. 졸업식 때는 놀라운 간증들이 이어지며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제 목요일 오후 졸업식을 마치고, 금요일 새벽에는 수양관에서 약 두 시간 떨어진 신학교로 이동하여 입학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선교센터와 신학교 건물이 한창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현지 형제가 사랑의 불꽃에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땅을 헌신하여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신학교 운영이 가능할 만큼 완공되어, 이번에 62명이 입학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숙소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사랑의 불꽃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장소는 중남미 현지 GMI 선교사 훈련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어권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될 계획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신길교회 부흥성회: 10/15-10/17
- 서산 성경교회 부흥성회: 10/20-10/22
- 제주 순복음 교회 부흥성회: 10/24-10/26
- 은혜동산 17기: 10/27-10/30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북한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헌신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그리고 GMI의 로고가 '민들레'인 것처럼, 복음의 불꽃이 전 세계로 흩어져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몰도바

정석영 / 김현진 선교사

지난 6월에는 OM 몰도바의 지시에 따라 몰도바에서 출국할 준비를 하며, 고장난 자동차를 여러 차례 정비하고 점검하였고, 은혜가운데 이삿짐을 팀 창고에 무사히 옮겨놓았습니다. 6월 25일에는 정들었던 몰도바를 당분간 떠나기 위하여 몰도바를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7월 2일~16일까지의 약 2주간 불가리아 선교사님들에 의해 시작된 '발칸 MK 캠프'에서 저는 주방팀으로, 아내는 한국어 교사로 발칸 지역 MK를 섬기며 귀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칸 MK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친 후, 8월 동유럽선교사대회까지 아내는

두통과 어지럼증 및 불면증으로, 저는 어지럼증과 구토에 의한 통증으로 약 1달간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12일~15일 동유럽선교사대회가 체코에서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오신 여러 의료진분들께서 저희 부부를 진료하시면서, 저는 이석증과 왼손의 손가락 떨림을 제어할 수 없는 증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아내는 뇌종양이나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하시며 한국에 가서 뇌CT 등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동유럽선교사 대회 기간 동안 의료진분들께서는 아내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시며 통증과 어지럼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의료진으로 인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EU 쉥겐 지역 무비자 기간 만료로 인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로 이동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스탄불에 계신 선교사님 가정에서 미국 파송 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움이었겠지만 이스탄불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국으로 가서, 건강과 관련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E국

김OO / 양OO 선교사

이제 카이로는 여름의 끝자락인 거 같습니다. 날씨도 좋아진 만큼 입덧도 좋아지고 이제 임신 16주차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조심해야 할 시기지만 매번 병원 방문하며 느끼는 게 주님께서 아이들 보호하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이곳은 많은 방문자들로 현재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국으로 한분 한분 보내심에 주님께서 뜻이 있고 저희 부부는 E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나누기 위해 더 힘써 준비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협력하여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더 배우는 시간과 주시는 훈련으로 단단해지는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곳은 방문하는 분들이 계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민족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KM 청년부 리더팀

귀한 동역자 분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일정의 반을 왔고 남은 반의 시간동안 주님께서 이팀 한분한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E국이 무엇인지 그 응답을 듣고 앞으로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느헤미야 말씀처럼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더 연합하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품고 나아가는 리더들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SUDAN 선생님과 예배 & 성경공부

학교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며 매주 새로운 문제들과 소문들로 어수선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선생님들은 떠나고 남은 선생님들과 매주 저희 집에서 예배하고 모임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처음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되새기고 말씀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더 구하는 시간



이 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당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M 청년팀

이 땅에 더 많은 청년들이 오길 꿈꿔 왔는데,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명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3개월 동안 이땅과 민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명은 감기에 나머지 친구들도 감기 기운이 있어 콜록이고 있습니다. 빠른 건강회복과 아람어가 어렵지만 극복하여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캄보디아는 지금 프춘명 캄보디아 추석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수선했던 가운데서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은 친구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나오는 청소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 성경공부하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기존 아이들과 분리해서 개인 성경공부로 바꾸려고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 한명이라도



잘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교회에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역자가 우리와 함께 사역한지 6개월이 지나갑니다. 조금씩 서로 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지 않아 아직 사역에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역자와 그 사모 그리고 그 자녀가 끄름뽀뽀 아꾼 쓰나오(스나오 은혜 교회)에서 잘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의 사모는 학교 선생입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님이 지금 병환 중이라 돌봄이 필요한시기라 적극적으로 교회활동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쩨으런이 직장을 옮기면서 주일 예배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신앙과 환

경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막내 사론이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느 대학에 갈지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조롭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고 또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또 자기 살아야 할 생활비를 벌면서 학교 다녀야 하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이겨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이제 대학4학년인데 대학원에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마을에 예배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역자도 아직 교회에 적응하기 전인데 일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므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장소를 인도하셨기에 속히 그 마을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 주신 덕분에 드디어 파푸아뉴기니의 공용어인 토티진어로 번역한 전도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글과 더불어 그림을 담아,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890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토티진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용어이기에, 이 전도책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GBT 선교사들을 위한 언어학 강의를 준비하



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성경번역 선교사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번역할 때 겪는 어려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전하는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언어로 더 풍성하게 번역되어, 각 민족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GBT의 성경번역 선교사들을 위해 SIL 홈페이지에 있는 언어학 사전에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어학 사전은 성경번역 선교사들과 성경번역 사역에 실제적인 유

익을 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한국어로 사전이 번역되면 선교사들이 언어학적 개념을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어 현지 언어를 더 깊이 분석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번역이 성경번역의 길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언어로 전해지는데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영미 선교사는 이번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격려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해 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갚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국

임진섭 / 양윤희 선교사

그레이스 인카운터 2기

작년 1기 인카운터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인카운터 2기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팀멤버가 저희 부부와 협력하시는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4명이 섬겨 일이 많고 힘이 들었지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인카운터 2기는 1기 수료생 중 8명의 성도와 저희 부부 그리고 협력선교사님(방콕온누리비전

한인교회) 부부로 총 12명의 팀멤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총 7명의 캔디들, 저희 교회 5명 방콕온누리비전한인교회 성도 2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주말 수양회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하여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마지막(9주차)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캔디뿐만 아니라 팀멤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특히 팀멤버들이 섬기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투의 아내가 영접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투의 아내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2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고 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GTD Thai-Raos 2기

11월에 저희 GMI에서 진행되는 GTD Thai-Raos 2기를 태국인과 라오스인을 대상으로 준비중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팀멤버로 투, 짜압, 아이가 참여하고 6명(니, 친, 깍, 위라, 닛, 땡)의 성도들이 캔디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 은혜한인교회에서 26명과 안산빛나교회에서 8명이 오셔서 섬길 예정입니다. GTD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전도폭발훈련

zoom으로 진행되는 전도폭발 훈련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6월 말부터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이제 테스트와 졸업만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투, 친, 땡 3명이 훈련생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12주간의 시간동안 쉽지는 않았을텐데 끝까지 함께 훈련에 동참해준 성도들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에 전도폭발로

국

기OO 선교사

SOG 예배 공동체

방학으로 인하여 조용했던 예배 공동체가 신입생들의 참여로 활발해졌습니다. 한 곳을 정하여 예배드리며 양육 받고 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때론 학생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편의에 따라 교회를 옮겨가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내려놓고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국은 대학교는 학교별로 다르지만 8월말~10월 초 중에 입학기가 시작합니다.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들도 있고 입학기를 맞아 신입생들이 새로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환영하고 SOG 예배와 양육 공동체에 정착하며 정착한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기를 소망하며 10월 중 신입생 환영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혜 기숙사

기숙사 학생들은 대부분의 SOG 사역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로 훈련을 받는 친구도 있고, 방학 중 단기선교에 함께 참석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남학생은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연락을 회피하고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동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속도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압니다. 학생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한단계씩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새학기를 맞아 여학생 기숙사에 한 친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여학생 기숙사에 6명, 남학생 기숙사에 3명이 살고 있는데 기숙사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태도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육 사역

방학을 맞이하여 멈추게 된 영어 수업을 재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수업이 계속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수업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바빠지면 언어 수업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던 친구도 멀리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 한국어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성이 떨어지니 새롭게 영어, 한국어 수업을 요청하는 아이들도 있어도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계속 필요가 있는 것을 보지만 지속성을 위한 방법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육 사역은 잠시 멈추지만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그 때를 잘 깨닫고 학생들의 열정이 지속되며, 사랑과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경 통독

감사하게도 온라인 성경통독은 30-40명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 읽는 행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통독을 통해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학 사역

7월말, 8월초 다른 섬에 살고 있는 후원 가정 및 공동체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조금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의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학생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SOG를 통하여 후원을 받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2주에 한 번 양육의 시간을 가집니다. 성탄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현지 사역자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월 1회 첫 주 부모기도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7일 말씀을 전하는데 부모님께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세요. SOG가 아닌 현지 사역자를 통해 후원하는 아동들도 월 1회 현지 사역자가 방문합니다. 복음을 아이들과 나누었고 방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후원을 감사하고 계시는데 이 감사가 영혼을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되었음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공동체 양육 사역

새학기를 맞이하여 3개 대학교에 새로운 공동체가 더해져 8개 학생 공동체를 현지 사역자가 1주일마다 1회씩 양육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내용들을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최근 현지 사역자가 이전에 사역했던 마을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현지 사역자의 SNS를 보고 연락을 하셨는데 마을 가운데 어른 공동체를 열기를 원하셔서 9월 30일에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시는 분들과 M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뀐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시작되는 공동체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고 양육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며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이 마을에서 12월에 하루 사역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인형극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문제없이 허락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모임

월요일은 현지 사역자, 화요일은 한국 선생님들, 목요일은 공동체 학생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기도 모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역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간증문

Kenya + Tanzania

2025 Summer Missions Testimony

Phoebe Park / EM

이번 여름 케냐와 탄자니아로 떠난 단기선교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선교였고, 정말 가장 열매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단 17명의 팀원으로,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VBS(성경학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기도뿐 아니라, 뒤에서 저희를 위해 중보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만났고 또 섬길 수 있었던 사람들로 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어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었고, 단 3일이라는 짧은 시간만 함께 했는데도 마치 평생 알아온 것 같은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은 단순한 언어의 교환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사람들은 모두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했고, 그들

의 어린아이 같은 기쁨은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는 케냐 콰레(Kwale) 교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나뭇잎과 가지를 손에 들고 버스를 따라 달리며 환영의 노래를 불렀고,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설 때까지 앞을 뿌리며 맞아주었습니다. 외모도, 언어도,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른 아이들에게서 받은 넘치는 사랑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함께 춤추는 그 단순한 기쁨은,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임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향해 품은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하면 그저 작은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일하셨고, 저는 돌아와서 더 하나님



을 구하며 제 잔을 채워 주시길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만난 아이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해서 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브와나 아시피웨!(Bwana Asifiwe,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C국

조OO / 윤OO 선교사

켜켜이 쌓인 의자들을 보며 마치 지난 수개월 저희 부부 모습 같습니다. 비자 문제와 산적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들보다는 당장 시급한 눈앞의 일들에 급급하진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은혜의 도우심으로 몇일 전 이곳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영업집조(사업허가증)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이어 지금은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새로 이사한 집의 거실과 방 한 칸을 꾸며서 비즈니스와 함께 다양한 용도로 손님들을 맞이하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동안은 중고 주방집들과 가구들을 찾느라, 또 부부가 셀프 인테리어 공사를 해보겠다 도전하다 결국엔 둘 다 심한 몸살이 나서 고생도 제법했습니다.

요즘 이곳의 상황을 저는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지속성인 경기 침체로 거리의 상점들은 연신 문을 닫고 있고, 주머니 사정이 뻘한 서민들은 늘상 값싼 노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웁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심지어 유명 호텔체인 마저 최근 매출로 나온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든 마다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송고한 느낌마저 듭니다.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며 저 또한

일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의 거룩한 임재를 생경히 느끼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취업비자 서류가 속히 잘 준비되고 또 비자가 순조롭게 나올 수 있도록 두 손과 마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취업비자 신청과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2. BAM사업이 잘 준비되어 변화의 발판을 제공하도록
3. 지역 단체와의 협력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4. 사업의 효용성보다 포용과 인내를 더욱 발휘하도록
5. 군인대를 앞둔 두 아들의 안전과 건강, 믿음을 위해

주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1분단상 145-10월호>

- 김대규 장로

흔히 형통하면 성공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이다. 평안과 풍요, 만족과 기쁨이 있기에 누구나 갈망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찰라흐, 히. צָלַח)”은 세상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주어진 장애물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세상의 형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관에 기초한 것이라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찰라흐”는 하나님에 근거를 둔 것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요셉에게서였다(창39:2). 그것도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한 것이었다. 나아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복해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선언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한다. 그런데 “형통”이란 말은 하지 않는다. 무엇이 달라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주어진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는 달리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중심을 보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이 “형통”은 주어진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섰느냐와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다.

성경은 형통한 삶을 살아 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노아, 아브라함, 모

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다윗, 욥, 바울... 이들은 모두 고난과 역경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자라고 칭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배워야 한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방주로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따르며 40년간의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끈 지도자가 되었다. 여호수아의 경우 율법을 붙들며 말씀 중심의 삶으로 민족을 이끌었다.

선지자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멜산의 기도 응답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 하였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다윗은 험난한 생애를 주께 맡기고 회개를 통한 회복과 충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욥은 갖은 고초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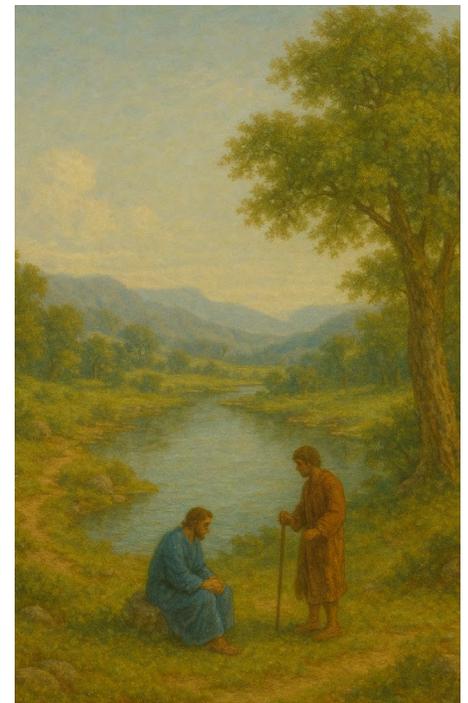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주안에서 동행, 동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점이다.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번영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것이었다.

그렇다. 우리가 추구할 삶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삶이어야 한다. 이러한 삶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데서 시작된다. 그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거나 요동

치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형통”케 되는 삶이다.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7).”고 강조한 말씀도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형통”케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야 한다. 주안에서 형통케 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높여 드리기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바로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가 되는 삶인 것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 진정한 “형통”은 이런 것이라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의 삶인 것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E국 김OO / 양OO 선교사

1. KM청년팀이 남은 시간 이곳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EM 청년팀의 건강회복과 이곳에서 훈련을 통해 영적돌파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더 꿀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수단학교가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기도해주세요.
4. 1:1 제자훈련하는 수단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남편에게 힘과 능력, 성령충만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5. 무A 형제가 담석 수술을 몇일 전에 받았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I국 기OO 선교사

1. SOG(Serve Our Generation) 사역을 위해
 - 10월 중 있을 신입생 환영 예배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 새로 시작되는 공동체 모임들이 환경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 예배와 모임을 위한 공간이 예비될 수 있도록
2. 장학 사역을 위하여
 - 월 2회 양육의 시간을 가질 때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지혜와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도록
 - 믿음과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3. 은혜 기숙사 사역을 위하여
 -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영적 훈련, 시간 관리, 학업, 생활 훈련 등)
 - 새로 들어온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4. I국 고론딸로 종족군을 위하여
5. 한국에서의 시간을 위하여 (9월 24일-12월 2일)
 - 검진 결과에 따라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 후원 교회 방문과 동역자님들과의 만남이 은혜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1. 준비 중인 언어학 강의가 선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통해 선교사들이 현지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하여 성경번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 진행 중인 언어학 사전 번역이 지체롭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성경번역 선교사들이 언어학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3. 전도책자가 파푸아뉴기니의 모든 부족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전달되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4. 김운용 선교사에게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영미 선교사의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되어 면역력이 올라가고, 저체온증도 정상체온이 되어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5. 아들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직장에서 지혜롭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때에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태국 임진섭 / 양윤희 선교사

1. 방콕 은혜교회를 위해
 -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 GTD를 참여하는 11명의 팀멤버와 캔디가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되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 주말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2. 저희 가정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성령충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3. 가족의 건강과 삶을 위해
 - 임진섭 선교사: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 양윤희 선교사: 두번 수술했던 무릎이 자주 아프로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되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무릎통증은 많이 좋아졌으나 어깨 통증은 낫지 않아서 태국에서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 근육 손상으로 계속 치료중인데 잘 회복되도록
 - 임하엘: 학교반에서 남자애들 중 유일하게 한국인인데 욕설, 왕따, 구타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를 옮기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서 하엘이가 잘 적응하도록

몰도바 정석영 / 김현진 선교사

1. 저희 부부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지내게 될 숙소와, 만나게 될 지체들과의 교제에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3. 다시 사역지로 가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만드시기를 기도해주세요.
4. 필요한 모든 재정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쓰나오 은혜교회를 위해

1. 쓰나오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 자라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청소년 성경공부가 잘 진행되어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 사역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4. 찼으란이 직장문제로 주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5.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6.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7. 새로운 마을에서 예배를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일들로 인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위하여

1.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2.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시대를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3.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4.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세 자녀 드보라 다니엘 샤론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인도개척선교 (10/24-11/1)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 은혜동산(통일민 TD) 17기 (10/24-11/2)
S/L: 한기홍 목사, 력터: 장해규 장로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 태국 TD2기 (10/31-11/8)
S/L: 송종호 목사
렉터: 정명섭 집사
문의: 안규범 집사 (714-328-4820)

- 알래스카 인카운터2기 (11/11-11/17)
S/L: 송종호 목사
디렉터: 신기혁 집사
문의: 어에녹 집사 (714-313-5544)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
문의: 이희경 집사 (714-337-3091)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 WWW.YOUTUBE.COM/
@GMIMMISSION

- WWW.FACEBOOK.COM/
GMIMMISSION

